



ISSN: 2288-7709  
 JEMM website: <https://accesson.kr/jemm>  
 doi: <http://dx.doi.org/10.20482/jemm.2024.12.2.37>

# Effects of Family Func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Quality of Life: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Hwa-Sil JANG<sup>1</sup>, Won-Sop SHIN<sup>2</sup>

Received: February 06, 2024. Revised: February 08, 2024. Accepted: April 05, 2024.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impact of family functions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exploring how parenting attitude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obtained a total of 124 valid surveys with the assistance of the Cheonan and Asan Multicultural Centers. Using SPSS 24.0 and AMOS 24.0, the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correlation analysis. To test hypotheses, the study conducted simple (multiple) regression and three-step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family func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attitud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Additionally, except for autonomy and rational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ttitudes were found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between family functions and the quality of life. **Conclusions:** It was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parenting attitudes, along with family functions, are crucial factor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 study suggests various methods at the levels of multicultural families, local communities, and the national level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Parenting Attitudes, Quality of life.

**JEL Classification Code:** D19, F50, I30, I31.

## 1. Introduction

교통, 정보, 경제적 교류의 국제화는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촉진하는 기제가 되었다. 실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들을 수용하는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이동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국제화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확대에 의해

혼혈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 등 다문화사회로의 전개가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나라가 이들의 인권 보호를 포함하는 다문화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많은 도시에 다문화 주거지와 다문화거리가 형성되었다. 이런

1 First Author. PhD, Department of Forest Therap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h6449@hanmail.net](mailto:h6449@hanmail.net)

2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Agriculture, Life & Environment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shinwon@chumbuk.ac.kr](mailto:shinwon@chumbuk.ac.kr)

© Copyright: The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순혈주의의 훼손, 이문화 수입으로 인한 갈등 등을 우려했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로 계속 증가하여 2025년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3%를 넘어서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RIHS, 2022). 이와 맞물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하였으며, 이 또한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하였다(Statistics Korea, 2022). 이런 결과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현상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 존속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민 및 귀화 촉진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Statistics Korea (2022)의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13,926건)의 비중은 7.2%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다문화 출생(14,322명)은 전년 대비 12.8%(2,09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력 단절, 가사양육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된 '결혼 빙하시대' 현상이 다문화사회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화로 인해 사회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일 뿐 아니라 문화 교류 및 이해 증대를 통한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는 사회통합과 공정성 강화 차원뿐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다문화가정 구성의 주요 요인인 자녀에 대한 이들의 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lson (2000)의 가족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인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가족기능으로 구성하고, 이들 요인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이들 요인 간에 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양육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양육태도는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천안, 아산다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총 124명의 유효설문지를 획득하였다. 분석은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 후 단순(다중) 회귀분석 및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들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의 역할뿐 아니라 이들의 양육태도를 이해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많은 기관·단체들에게 운영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Literatur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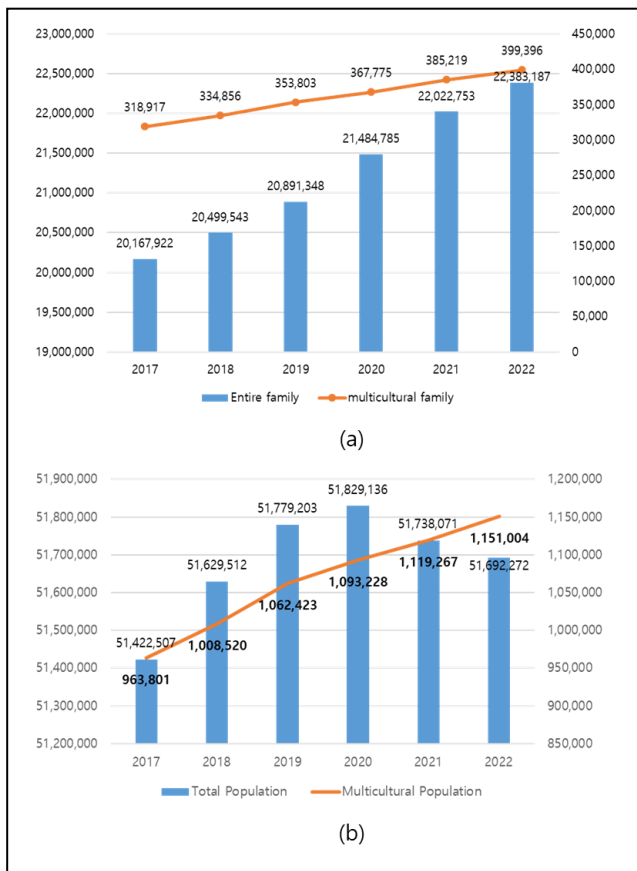
### 2.1. Multicultural Family

다문화가정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MOE (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Park, 2023). 국제결혼가정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반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Seol, 2005).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 성비의 불균형에 따른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ee et al., 2023).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통계청이 다문화 가구 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령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

한다 (Ju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Park and Lee (2010)가 정의한 것처럼 우리와 다른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MOGEF (2023)의 다문화가족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구는 39.9만 가구로 전체 가구(2,238만 가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원은 115만 명으로 전체 인구(5,169만 명)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가구 및 전체 인구대비 다문화가구(a)와 다문화가족원(b) 변화추이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2023)'s Multicultural Family Statistics

**Figure 1:** Trend of increase in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compared to total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2017-2022)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부모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차별, 경제적 빈곤, 경제활동의 기회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많은 갈등 (Goo et al., 2021; Ko & Park, 2023; Lee & Kim, 2021; Park & Son, 2022; Song, 2021)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교육 제한,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부족, 다문화가정의 가치 충돌은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내 이중문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육아와 양육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 부재와 결핍, 무지나 무관심과 관련된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족으로의 기능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이들이 영위하는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2.2. Family Function

가족은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평형을 이룰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조직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체계로 간주된다 (Cronin-Stubbs, 1978). Bertalanffy (1968)가 제시한 일반체계이론 (general system theory)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 또는 체계로 판단하여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은 개인 차원이 아닌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이해되고, 개인을 이해하는 것도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체계와 그 기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Friedman et al., 1987).

이런 관점에서 가족기능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Miller and Janosik (1980)은 가족기능을 가족이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맡겨진 모든 작용이라 정의하였다. Friedman et al. (1987)은 가족을 상호의존적·작용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작용하는 개방체계로, 환경으로부터 투입과 산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와 활동으로 가족이 개방체계로 유지되고 구성원들과 가족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가족기능으로 보았다. Seo and Kim (2012)은 메타 연구를 통해 가족기능이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행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가족기능은 개인의 역동이나 행동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Olson et al. (1980)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고 가족기능으로 평가하는 순환모델 (Circumplex)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은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체계가 전체성을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 & Kim, 2019). 또한 Olson et al. (1983)은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가족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설명하

는 요인으로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가족적응력과 가족응집력의 2개 요인으로 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적응력에 대해 Olson (1991)은 가족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규칙, 권력구조, 관계성과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적응성의 요인으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5가지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적응력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와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상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Kang & Cha, 2019).

순환모델에서 가족 응집력 (family cohesion)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애정적인 유대와 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Olson et al., 1983). Olson et al. (1980)은 가족 응집력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즉, 가족 응집력은 개인이 가족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응집성의 개념은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는 것이다 (Kim & Kim, 2019).

본 연구에서는 Olson et al. (1980)과 Olson (1991)의 정의를 원용하여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인 가족 응집력과 가족관계와 관련된 가족체계인 가족적응력의 2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2.3. Parenting Attitude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며, 지지적인 수준과 엄격한 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Coleman et al., 2000; Hofferth & Anderson, 2003).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Becker, 1964; Schaefer, 1965). 많은 연구(예: Berns, 2016; Grusec & Dany, 2007; Rohner & Veneziano, 2001)에서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격, 가치관, 지지체계, 취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부모-자녀 간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Kim, 2022).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양육태도를 이론으로 처음 정리한 Symonds (1949)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거부적, 익애적, 과잉 보호적, 엄격 권위적, 포부 야심적, 의존적, 애증적 유형으로 분류하며 애정을 받고 자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자녀집단을 비교하여 애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Kim, 2022). Baldwin et al. (1945)은 거부적, 방임적, 민주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부모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Schaefer (1959)는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다루는 애정-거부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제한 및 규제를 다루는 자율-통제의 2개 축으로 구분하였다. Baumrind (1967)는 자녀의 행동을 내버려두는 허용적 (permissive), 자녀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태도와 적절한 규칙을 제시하며,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민주적 (authoritative),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며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를 요구하는 독재적 (authoritarian) 양육태도의 3개로 구분하였다 (Yun et al., 2023).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안정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생애과정론으로 설명하면 청소년이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과 경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Hayward & Bridget, 2004), 이때 대부분 상호작용의 대상이 바로 부모이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는 대표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체계이론 (family systems theory)에서는 가족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전이가설 (spillover hypothesis)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하위체계에서 발생한 감정, 행동, 분위기가 다른 하위체계로 전이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Erel & Burman, 1995). 즉,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도 긍정적·부정적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거나, 독립성과 책임감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화적 또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에게 통제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양육자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정서적 측면과 아이의 노력과 성과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반영한 애정·성취적 양육태도, 아이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율·합리적 양육태도, 아이에게 대립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2.4. Quality of Life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삶의 질은 주제화되었고, 1970년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20년 동안에 부각된 개념이다 (An et al., 2007; Baek & Kim, 2011). 삶의 질이 연구주제로 부각된 이유는 삶의 질이 인간의 안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내적인 균형과 외적인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잘 나타내는 개념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Rios et al., 2010).

이처럼 삶의 질은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의 즉각적인 회복이나 웰빙과는 다소 다른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 상태, 의존정도, 사회적 관계, 개인적 이득, 환경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포함한다 (Stumbo & Peterson, 2009).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기대, 규범 및 관심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으로 정의된다 (WHO, 1997). 또한 Schneider(1976)는 주관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개인 또는 사회조직이 경험하는 직접적인 복지로 정의하였으며, Myers (1987)도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Glatzer (2006)는 객관적인 생활여건과 주관적으로 인지된 복지의 개념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삶의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은 통제성, 자율성, 자아실현, 행복감과 같은 내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라고 정의된다 (Kim & Moon, 2023).

삶의 질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지각된 만족감과 행복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Young & Longman, 1983) 다문화가정에도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질은 심리적 행복감과도 상관관계가 있어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Hajiran, 200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Myers, 1987; Rios et al., 2010; Schneider, 1976)의 객관적·주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다문화가족이 인지하는 삶의 질을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이나 행복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 3. Research Methods and Materials

### 3.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인 가족기능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여부와 관련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이겨내기 위한 가족 건강성과 가족기능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기능적 의미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원활하게 조절되고, 정서적 안정이 도모되며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의 특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Olson et al.,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기능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족구성원의 결함이나 가족기능의 상실로 인해 구성원의 부적응행동이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가족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가족기능은 가족체계이론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개인의 역동이나 행동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Westley and Epstein(1969)은 가족의 문제점 해결, 권력, 역할 등에서 자율을 격려하는 가족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하였다. Moos and Moos(1976)는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높고, 가족이 주어진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응해 나갈수록 심리적으로 온화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하였다. Beavers (1981)는 가족기능을 개방체제로 정의하며 한 구성원에서의 영향력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lsky (1984)도 좋은 부모관계는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체계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Olson (1986)은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족응집력이 균형을 이룰 때 가족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의 발전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e.g. Goldberg & Easterbrooks, 1984; Lewis et al., 1984)도 조화로운 부모관계는 좋은 부모 자녀 관계와 연결되며, 부모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민감하며 덜 강압적으로 하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Olson (1991)은 균형적인 가족 기능이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능적 조화가 풍부한 가족은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가족 유대감이 잘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Dohrenwend (1973)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삶의 불안정한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가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녀행동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이며 (Goldberg, 1990; Emery & O'Leary, 1984), 부모간에 갈등이 많으면 자녀의 행동문제도 더 많은 것 (Dadds & Powell, 1991; McHale et al., 1991; Trickett & Susman, 1989)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가족적응력과 가족 응집력과 같은 가족기능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적응력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적응력이 높으면 애정·성취적 양육태도를 촉진시킬 것이다.

**가설 1-2.**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적응력이 높으면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를 촉진시킬 것이다.

**가설 1-3.**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적응력이 높으면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를 경감시킬 것이다.

**가설 2.**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응집력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응집력이 높으면 애정·성취적 양육태도를 촉진시킬 것이다.

**가설 2-2.**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응집력이 높으면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를 촉진시킬 것이다.

**가설 2-3.**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가족응집력이 높으면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를 경감시킬 것이다.

Jonston et al. (2003) 과 Farmer et al. (2004)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가족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경우 자신의 양육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등 가족기능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Hu and Feng(2022)은 민주적 양육태도는 친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친사회적 행동의 도덕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미취학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Noh et al. (2015)은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은 학교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Kim and Lee(2016)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이 부(-)적

상관이 있으며,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사회적 위축을 경감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ohammadi and Zarafshan (2014)은 자폐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용적 양육방식은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며,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반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양육태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다문화가정의 양육태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다문화가정의 애정·성취적 양육태도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가설 3-2.** 다문화가정의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가설 3-3.** 다문화가정의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는 삶의 질을 낮출 것이다.

Matejevic et al. (2014)은 균형잡힌 응집력과 유연성이 민주적/권위적 양육태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연결, 규제 및 자율성 부여와 모두 관련이 있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가족기능의 모든 기능적 패턴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Richardson and Gleeson (2012)은 더 건강한 가족기능을 보고한 보호자는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의 행동 문제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lson et al.(1980)이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가족응집력),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상황적으로 잘 변화시킬 (가족적응력) 수 있다면 다문화가정이 인지하는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가족적응력과 응집력이 높은 가족 구성원들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서로가 신뢰하며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앞에서 보고한 선행연구(Dadds & Powell, 1991; Emery & O'Leary, 1984; Goldberg, 1990; Goldberg & Easterbrooks, 1984; Lewis et al., 1988; McHale et al., 1991; Trickett & Susman, 1989)도 가족기능이 양육태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가족기능과 삶의 질 사이에 양육태도가 매개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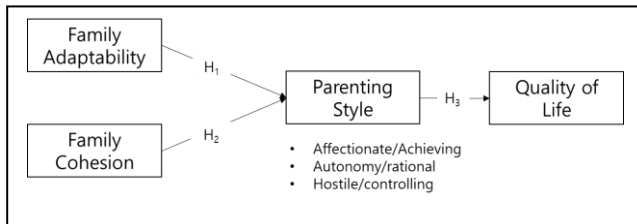
**가설 4.**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삶의 질 간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다문화가정의 가족적응력과 삶의 질 사이에 양육태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다문화가정의 가족응집력과 삶의 질 사이에 양육태도가 매개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을 반영한 구조화된 연구모형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Note: The hypothesis (H4) of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was not presented.

**Figure 2:**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 3.2. Data Collection

자료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천안, 아산다 문화센터의 도움으로 총 124명의 유효설문지를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72명(58.1%)으로 남성(52명)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대 이상과 30대 이상이 각각 49명(39.5%)이었으며,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54명(43.5%)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52	41.9
	Female	72	58.1
Age	20s or older	49	39.5
	30s or older	49	39.5
	40s or older	26	21.0
Earn (KRW)	Less than 2 to 3 million	54	43.5
	3 to 4 million	52	41.9
	4 to 5 million	18	14.5

### 3.3. Measurement Scale

가족체계의 유형인 가족기능은 Olson et al. (1980)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와 같은 가족응집력의 10개 문항과 '우리 집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와 같은 가족 적응력의 10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양육태도는 Schaefer et al. (1959)의 척도를 근거로 Oh and Lee(1982)가

활용한 척도를 다문화가정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와 같이 애정·성취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11개 문항,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와 같이 자율·합리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6개 문항, '자녀 의견은 묻지 않고 자녀에 관한 일을 부모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이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6개 문항을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삶의 질은 Baker et al. (2005)와 Massey and Akresh (2006)의 연구를 근거로 '나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와 같은 7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Empirical Analysis

### 4.1. Reliability and Validity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가족기능의 하위요인 중 가족적응력의 1개 문항과 가족응집력의 2개 문항,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의 2개 문항의 표준적재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한 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념신뢰도는 .881~.956으로 기준인 0.7을 초과하였으며, 분산추출지수(AVE)는 가족적응력(AVE=.499)을 제외하고 .540~.800으로 기준인 0.5를 초과하여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판별타당도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인 결정계수와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 4.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변수들의 관계와 방향성 및 인과관계분석 가능성뿐 아니라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대·통제적 양육태도 만이 다른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관계( $r = -.524 \sim -.606$ )가 있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정(+)의 관계( $r = .453 \sim .815$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적응력의 분산추출지수 값(AVE)을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의 상관계수( $r = .666$ ) 제곱 값인 결정계수( $r^2$ )와 비교한 결과 분산추출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도도 확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매개변수 중 애정·성취적 양육태도와 자율·합리적 양육태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높아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어 두 변인을 모두 독립변수로 동시투입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분산팽창요인(VIF)이 2.980으로 10 이하이며, 공차한계 (tolerance)도 0.1보다 높은 .33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 4.3. Hypothesis Testing

가족기능과 양육태도에 대한 직접효과 가설(H<sub>1</sub>, H<sub>2</sub>) 검증을 위해 성별, 연령 및 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적응력은 애정·성취적 양육태도( $\beta = .800, p < .001$ ), 자율·합리적 양육태도( $\beta = .704, p < .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통제적 양육태도( $\beta = -.515, p < .001$ )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응집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애정·성취적 양육태도( $\beta = .658, p < .001$ ), 자율·합리적 양육태도( $\beta = .556, p < .0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통제적 양육태도( $\beta = -.373, p < .001$ )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의 각 하위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양육태도와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 가설(H<sub>3</sub>) 검증을 위해 성별, 연령 및 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정·성취적 양육태도( $\beta = .585, p < .001$ )와 자율·합리적 양육태도( $\beta = .463,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통제적 양육태도( $\beta = -.674, p < .001$ )는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의 각 하위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비록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양육태도 중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절대값 기준으로 적대·통제적 양육태도( $\beta = -.514, p < .001$ ), 애정·성취적 양육태도( $\beta = .380, p < .01$ )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자율·합리적 양육태도( $\beta = -.126, p = .28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기능과 삶의 질 간에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가설(H<sub>4</sub>)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하게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된 후 Baron and Kenny (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ppendix 3>에 제시한 것처럼 가족적응력과 삶의 질 간에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 중 자율·합리적 양육태도가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었으며, 애정·성취적 양육태도와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는 모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1>은 부분채택되었다. 한편 <Appendix 4>에 제시한 것처럼 가족응집력과 삶의 질 간에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은 모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 5. Conclusions and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다문화가정에서의 양육태도가 가족기능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기능을 가족적응력과 가족응집력으로, 양육태도는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한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구조화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가족적응력은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적응력은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가족기능과 부부 만족도에 따라 양육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Cuzzocrea et al. (2011)의 연구와 가족 적응성과 응집력 및 양육태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 Najjari et al. (2023)의 연구처럼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높은 가족적응력은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구성원간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가족응집력도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응집력은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통제적 양육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균형잡힌 응집력과 유연성이 민주적/권위적 양육태도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연결, 규제 및 자율성 부여와 모두 관련이 있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가족기능의 모든 기능적 패턴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Matejevic et al. (201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양육이 가족 응집력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으나 높은 수준의 성실성에서는 가족 응집력에 부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Aloia and Strutzenberg (2023)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정은 자녀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양육태도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애정·성취적 양육태도와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며,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참여적 양육태도보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인식한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았다는 Petito and Cummins (2000)의 연구, 양육태도와 삶의 질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시사한 Sanavi et al. (2013)의 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애정·성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자아개발을 촉진하며,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다문화적 기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사회적 적응과 상호이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Mohammadi and Zarafshan (2014)의 연구와 달리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소통과 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저해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넷째, 가족적응력과 삶의 질 간에 자율·합리적 양육태도를 제외하고 가족기능과 삶의 질 간에 다문화가정의 양육태도는 모두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런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가족기능과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양육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소통과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간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적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장벽을 극복하게 하고, 학교, 병원, 사회 서비스 기관 등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는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사회는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 중 자율·합리적 양육태도가 매개효과가 없었으며, 비록 다중공선성 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지만 애정·성취적 양육태도와 자율·합리적 양육태도의 높은 상관계수, 가족적응력과 애정·성취적, 자율·합리적 양육태도 간에 높은 상관계수는 척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으로 자율·합리적 양육태도의 모든 문항이 역문항으로 구성된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고 다특질-다방법 (multitrait-multimethod: MTMM)과 같은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와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별 언어로 번역된 척도를 제공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다양한 한계점 또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loia, L. S., & Strutzenberg, C. (2023). Family cohesion in adulthood as a function of parenting style in childhood and enduring personality traits. *The Family Journal*, 31(2), 288-295.
- An, M. Y., Lee, J. H., & Kang, K. H. (2007). *Investigation of happiness-inspiring factors to increase residential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 City*. 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 Baek, S. G., & Kim, H. N.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sport and goal of life: Happiness,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Philosophy of Mo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and Martial Arts (JKSPSDM)*, 19(3), 55-68.
- Baldwin, A. L., Kalhorn, J., & Breese, F. H. (1945).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58(3), i-75. doi: <https://doi.org/10.1037/h0093566>
- Baker, L. A., Cahalin, L. P., Gerst, K., & Burr, J. A. (2005). Productive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 adults: The influence of number of activities and time commit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 431-45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eavers, W. R. (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3), 299-30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69-208).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ns, R. M. (2016).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10th ed.). Boston, MA: Cengage Learning.
- Bertalanffy, L. V. (1968). *General system theory: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s*. G. Braziller.
- Coleman, M., Ganong, L., & Fine, M. (2000).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88-1307.
- Cronin-Stubbs, D. (1978). Family crisis intervention: a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16(1), 36-44.
- Cuzzocrea, F., Larcana, R., Baiocco, R., & Costa, S. (2011). Family functioning, parenting, and couple satisfac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Family Studies*, 16(2), 7-24.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Dohrenwend, B. S. (1973). Social status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2), 225-235.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Farmer, J. E., Marien, W. E., Clark, M. J., Sherman, A., & Selva, T. J. (2004). Primary care supports for children with chronic health conditions: Identifying and predicting unmet family need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9(5), 355-367.
- Friedman, A. S., Utada, A., & Morrissey, M. R. (1987).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 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or “enmeshed,” or both?. *Family process*, 26(1), 131-148.
- Glatzer, W. (2006). Quality of lif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idence from comprehensive indic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 169-188.
- Goldberg, W. A. (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531-556.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504-514.
- Goo, J. M., Yoon, H. S., & Lee, S. R. (2021). The Effect of Family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5), 794-807.
- Grusec, J. E., & Dany, L. (2007). *Parents' attitudes and beliefs: Their impact on children's development*. New York, NY: Parenting Skills
- Hajiran, H. (2006). Toward a quality of life theory: Net domestic product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1), 31-43.
- Hayward, M. D., & Gorman, B. K. (2004). The long arm of childhood: The influence of early-life social conditions on men's mortality. *Demography*, 41(1), 87-107.
- Hofferth, S. L., & Anderson, K. G. (2003). Are all dads equal? Biology versus marriage as a basis for paternal inve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213-232.
- Hu, Q., & Feng, Q. (2022). Parenting style and prosocial behaviour among Chinese Preschool children: A moderation model.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2(9), 1444-1461.
- Johnston, C., Hessl, D., Blasey, C., Eliez, S., Erba, H., Dyer-Friedman, J., ... & Reiss, A. L.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fragile X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24(4), 267-275.
- Jung, M. K., Cho, S. S., Mun, R. Y., & Oh, J. H. (2012). Intervention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 about professional counselors of multicultural domestic violence. *Korean Journal of 21st Century Social Welfare*, 9(1), 143-168.
- Kang, S. K., & Cha, Y. J. (2019).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nd children's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4(3), 63-81.
- Kim, E. S., & Kim, E. H. (2019). Research of humane-studies program of immigrant women's spouses on emotional stability family cohesion and adaptation.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5(2), 421-446.
- Kim, H. S., & Lee, J. M. (2016). The effect o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ocial withdrawal: The mediator effe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4(4), 77-88.
- Kim, S. H. (2022).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attitude of young children: focusing on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2(4), 121-146.
- Kim, S. Y., & Moon, J. Y. (2023). The effects of song-oriented music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of life, and solitud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23(3), 153-177.
- Ko, Y. H., & Park, S. G. (2023).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Korean society: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5, 29-55.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2022). Super-aged society.
- Lee, H. J., Jung, J. W., Lim, J. H. (2023). Case study on the change i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objective relations art therapy.

-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30(3), 131-160.
- Lee, H. R., & Kim, S. H. (2021). Teachers' perception of the bilingua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practices for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Children*, 6(1), 125-152.
- Lewis, C. E., Siegel, J. M., & Lewis, M. A. (1984). Feeling bad: exploring sources of distress among pre-adolescent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2), 117-122.
- Massey, D. S., & Akresh, I. R. (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954-971.
- Matejevic, M., Todorovic, J., & Jovanovic, A. D. (2014). Patterns of family functioning and dimensions of parenting styl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1, 431-437.
- McHale, S. M., Freitag, M. K., Crouter, A. C., & Bartko, W. T. (1991). Connections between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and school-age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1), 1-17.
- Miller, J. R., & Janosik, E. H. (1980). Family-focused care.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5(2), 136-142.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E: Ministry of Education). (2006). *Educational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23). *Multicultural family statistics* (policy data by topic).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64](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64)
- Mohammadi, M., & Zarafshan, H. (2014). Family function, parenting style and broader autism phenotype as predicting fa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in typically developing sibling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9(2), 55-63.
- Moos, R. H., & Moos, B. S. (1976).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s. *Family process*, 15(4), 357-371.
- M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Quarterly*, 23(1), 108-125.
- Najjari, E., Ashouri, A., Zahedi, K., & Gharree, B. (2023).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cyberbullying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 Risk Behaviors & Addiction*, 12(3). In Press. <https://doi.org/10.5812/ijhrba-131177>.
- Noh, M. W., Heo, M. J., & Choi, Y. S.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19-134.
- Oh, S. S., & Leem J. S. (1982). *A study on children's perception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their parents' parenting style*. Research Note, Seoul: Korea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3), 337-351.
- Olson, D. H. (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 (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1), 74-79.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44-167.
- Olson, D., DeFrain, J., & Skogrand, L. (2010).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aw Hill.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Park, J. Y. (2023). A study of the Korean Vowel articulation of Korean-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9(3), 263-282.
- Park, K. R., & Lee, J. M.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aegu Gyeongbuk a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6), 981-991.
- Park, W. H., & Son, W. B. (2022).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multi-cultural policy for expansion of the middle class. *GRI Research Journal*, 24(2), 165-184.
- Petito, F., & Cummins, R. A. (2000). Quality of life in adolescence: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parenting style, and social support. *Behaviour Change*, 17(3), 196-207.
- Richardson, R. C., & Gleeson, J. P. (2012). Family functioning,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in kin foster care. *Families in society*, 93(2), 111-122.
- Rios, K. A., Barbosa, D. A., & Belasco, A. G. (2010).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nursing technicians and nursing assistants.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18, 413-420.
-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382-405. doi: <https://doi.org/10.1037/1089-2680.5.4.382>
- Sanavi, F. S., Baghbanian, A., Shovey, M. F., & Ansari-Moghaddam, A. (2013). A study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and parenting styles with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 *J Pak Med Assoc*, 63(11), 1393-1398.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59(2), 226-235. doi: <https://doi.org/10.1037/h004111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chaefer,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3), 297-305.
- Seo, J. E., & Kim, H. J. (2012). Influences on family functioning: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3), 457-486.
- Seol, D. H. (2005). *Survey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olicy measures to support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ong, H. G. (2021). A study on 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lif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24(1), 29-50.
- Statistics Korea (2022). 2021 multicultural population dynamics statistics (press release, November 3, 2022).
- Stumbo, N. J., & Peterson, C. A. (2009).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Design: Principles & Procedures* (5th eds.). CA:

Peterson Education, Inc.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  
 Trickett, P. K., & Susman, E. J. (1989). 9 Perceived similarities and disagreements about childrearing practices in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intergenerational and concurrent family processe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280-301.  
 Westley, W. A., & Epstein, N. B. (1969). *The silent majority: Families of emotionally healthy college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97).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 Retrieved Sep 24, 2010, from

<http://www.who.int/mentalhealth/media/68.pdf>.  
 Young, K. J., & Longman, A. J. (1983). Quality of life and persons with melanoma: A pilot study. *Cancer nursing*, 6(3), 219-226.  
 Yun, J., Park, J. S., & Kim, J. S. (2023).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time use,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6), 801-814.

## Appendixes

### Appendix 1: Reliability and Validity Verification

Variables		Final Item	Construct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Family Function	Family Adaptability	9	.898	.499	.878
	Family Cohesion	8	.903	.540	.875
Parenting Attitude	Affectionate/Achieving	11	.935	.572	.899
	Autonomy/rational	6	.881	.562	.817
	Hostile/controlling	4	.941	.800	.902
Quality of Life		7	.956	.761	.946

### Appendix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124)

Constructs	1	2	3	4	5	6
1. Family Adaptability	(.499)					
2. Family Cohesion	.666**	(.540)				
3. Affectionate/Achieving	.807**	.666**	(.572)			
4. Autonomy/rational	.706**	.558**	.815**	(.562)		
5. Hostile/controlling	-.524**	-.524**	-.606**	-.533**	(.800)	
6. Quality of Life	.604**	.604**	.577**	.453**	-.670**	(.761)
Mean	3.73	3.83	3.84	3.96	2.16	3.90
Standard Deviation	0.58	0.64	0.57	0.56	0.72	0.68

Note: \*\* p<.01, ( ) indicates AVE value

### Appendix 3: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Quality of Life

Dependent Variables	Mediating Variable(MV)	Step	Result (β)	R <sup>2</sup>	F-value
Quality of Life	Affectionate/Achieving	Step 1 (β <sub>1</sub> )	.800***	.397	15.537***
		Step 2 (β <sub>2</sub> )	.607***		
		Step 3 (β <sub>3, IV</sub> )	.395**		
		Step 3 (β <sub>3, MV</sub> )	.265*		
	Autonomy/rational	Step 1 (β <sub>1</sub> )	.704***	.375	14.136***
		Step 2 (β <sub>2</sub> )	.607***		
		Step 3 (β <sub>3, IV</sub> )	.564***		
		Step 3 (β <sub>3, MV</sub> )	.061 <sup>n.s</sup>		
	Hostile/controlling	Step 1 (β <sub>1</sub> )	-.515***	.544	28.206***
		Step 2 (β <sub>2</sub> )	.607***		
		Step 3 (β <sub>3, IV</sub> )	.355***		
		Step 3 (β <sub>3, MV</sub> )	-.490***		

Note: \* p<.05, \*\* p<.01, \*\*\* p<.001, n.s: non-significant, R2 and F values suggest step 3 values.

**Appendix 4: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Between Family Cohesion and Quality of Life**

Dependent Variables	Mediating Variable(MV)	Step	Result ( $\beta$ )	R <sup>2</sup>	F-value
Quality of Life	Affectionate/Achieving	Step 1 ( $\beta_1$ )	.658***	.366	13.599***
		Step 2 ( $\beta_2$ )	.501***		
		Step 3 ( $\beta_3, IV$ )	.204*		
		Step 3 ( $\beta_3, MV$ )	.451***		
	Autonomy/rational	Step 1 ( $\beta_1$ )	.556***	.301	10.173***
		Step 2 ( $\beta_2$ )	.501***		
		Step 3 ( $\beta_3, IV$ )	.352***		
		Step 3 ( $\beta_3, MV$ )	.268***		
	Hostile/controlling	Step 1 ( $\beta_1$ )	-.373***	.524	25.952***
		Step 2 ( $\beta_2$ )	.501***		
		Step 3 ( $\beta_3, IV$ )	.289***		
		Step 3 ( $\beta_3, MV$ )	-.567***		

Note: \* p<.05, \*\*\* p<.001, n.s: non-significant, R2 and F values suggest step 3 values.